

5월의 계란전망

강재명
본회 지도조사부 과장

“소비부진과 높은 가격의 영향으로 서서히 내릴듯”

□4월의 계란값 상승은 정상을 두번 정복했다. 어떻게 보면 지난 불황의 댓가라도 하듯이 계란값이 제자리를 찾은 느낌을 주면서도 불안의 기색도 없지는 않다.

적정선이 얼마인가 소비도 줄지않고 생산도 늘지 않는 그야말로 계란값 안정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하루빨리 정착해 나가야 되겠다.

좋을때 무한정 호황을 누리고 나쁠때는 끝없이 나빠지는 결과를 계속 겪으면서 뾰족한 대책을 세워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 농축산물 가격정책이고 보면 눈앞의 호황에만 만족하는 양계인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금년도 사료생산추세나 병아리생산 추이가 예년의 패턴과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작년 11월, 12월, 금년 1, 2월은 병아리생산이 감소해야 함에도 늘어나고 금년 3월은 증가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분석해 보면 아직까지도 장래의 사업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않아 재투자가 되지않고 단기의 경기상황에 따라 입식해 나가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3월 산란용 사료생산실적을 보면 초생추사료가 전월에 비해 42.5% 증가했고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는 8.6% 감소했다. 산란사료는 129,787 M/T 으로 전월에 비해 8.8%, 전년동기간에 비해 2.2% 각각 증가했다.

□향후 계란전망은 지금까지 계속 오름세였고 특히 4월에 높은 가격에서 몇차례 상승함에 따라 예년에 볼 수 없는 초고가가 형성됨에 따라 값이 내리기가 쉬울 것 같다.

값이 높아 노계도태시기가 연장되고 5월들어 채소나 과일의 출하로 계란소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현시세 유지는 어려울 것 같고 한 두차례 하락후 다시 회복되는 현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생산추세로 보아 생산과잉으로 인한 큰폭의 값 하락은 없을 것같고 본격적인 하절기에 들어가면서 계란값 약세와 함께 노계노태량 및 값도 내리면서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해본다.

- 믿을 수 있는 종추 수시 분양중 -

상 경 능 장

전화 : (046) 742-3311~5

평택출장소 : (0333) 52-8031~2

※ 증계 및 실용계 병아리 입식수수

(단위 : 천수)

구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총 계 입식수수	88	52.0	21.5	16.1	27.9	65.6	38.4	8.3	41.9	2.9	24.0	49.4	55.6	403.6
	89	84.9	40.1	23.5	41.6	56.1	28.4	24.0	14.8	67.5	45.3	40.6	33.2	499.9
	90	25.8	42.2	32.6										
실용계	88	1,742	2,205	2,428	2,365	1,790	1,283	1,335	1,420	1,695	1,743	1,402	1,185	20,593
	89	1,355	2,569	2,683	2,562	2,352	1,925	2,237	2,197	1,959	1,806	1,904	25,969	
	90	1,970	1,959	2,302										

그림 1. 대란고시가격(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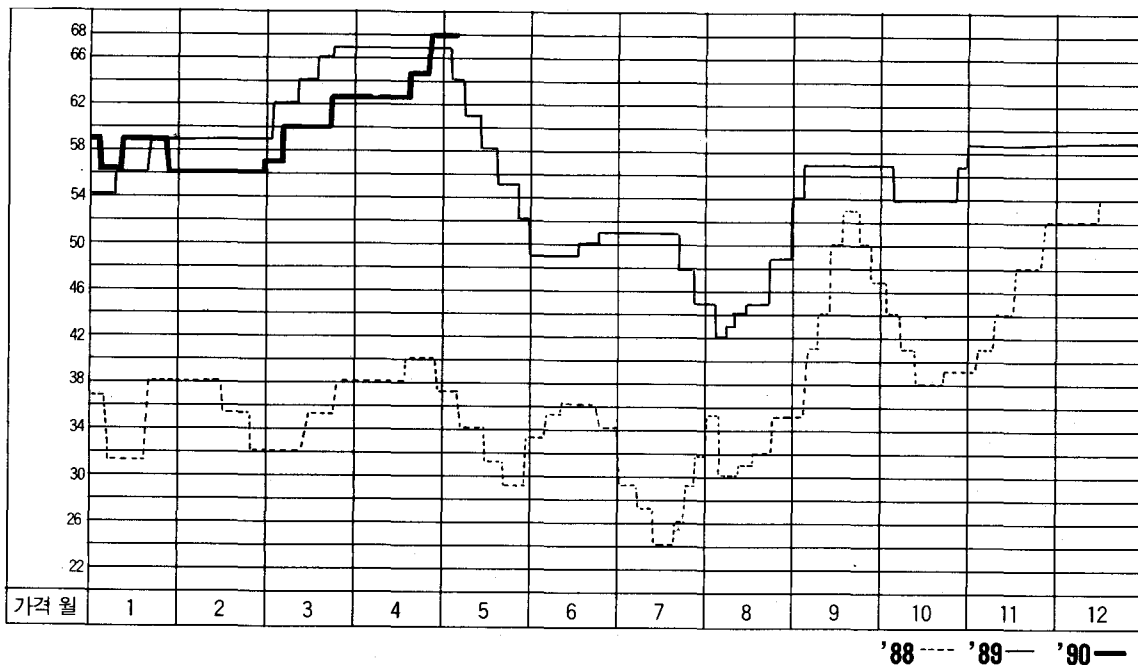


그림 2. 배합사료 생산실적

